소년체전·장애학생체전 성공 '담금질'

道, 준비상황보고회 안전·문화행사·숙박·식품 점검

金지사 "청소년 눈높이 맞춰 모두 즐기는 체전" 강조

전남도가 오는 5월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곁들여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2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지사 주재로 전남도교육청, 전남경찰청, 목포시, 전남체육회, 전남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준비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체전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한 경기장 안전 점검부터, 교통·수송 대책, 숙박업소 및 음식점 친절·위생 관리, 선수단 환영 분위기 조성 등 손님맞이까지 전체적인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본격적인 나들이가 시작되는 5월 행락철과 체전 기간이 겹쳐 많은 방문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인파 관리, 관광지 주변 경기장 점검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여러 문화행사도 체전 기간 중 열기로 했다. 제3회 전남도 청소년박람회를 열어 체전을 찾을 전국 청소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 평화광장과 남악 김대중광장 일원에서 선수단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시·군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도 체전 기간 전후로 집중 개최된다.

5월14일 열릴 전국장애학생체전 개회식은 '우리들의 꿈, 피어나라 생명의 땅 전남에서'라는 주제로 체전의 시작을 알린다. 전남을 대표하는 '첨단기술·꽃·나비'를 키워드로 스포츠를 통해 공존하고 성장하는 무대를 만들 방침이다.

또 방문객이 먹고 자는 불편함이 없도록 숙박·식품 분야 준비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 응대 등 손님맞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숙박·식품종합안내센터 운영, 1숙소 1담당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의 한 축인 자원봉사자도 당초 목표 1천190명의 140.6%인 1천673명이 모집돼 올해 체전에 대한 도민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자원봉사자는 경기장 안내, 경기 운영 지원,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대회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자매결연 응원단 1만6천886명은 경기장을 찾아 선수를 응원하고 사기와 활력을 북돋을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남은 40여일, 철저한 현장 위주 점검을 통해 경기 내외적으로 손님맞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최고의 소년(장애학생)체전을 치르자"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2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제2차 집행부 준비상황 보고회'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 등 관계자들이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봄철 다소비 위생용품 안전 강화

전남보건환경硏, 1회용 젓가락·종이컵 등 검사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28일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전남에서 제조·유통 중인 1회용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에선 일회용 젓가락·종이컵 등에 대해 중금속(납·비소), 이산화황 등 재질별 기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회용 컵·종이, 냅킨·젓가락 등 위생용품 12개 품목 224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4건(위생 물수건 1건, 성인용·어린이용 면봉 3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안전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위해 정도에 따른 회수의 신속성 등을 결정하는 회수 제도가 29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부적합 긴급 통보 절차가 도입돼 부적합 위생용품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양호철 약품화학과장은 "실생활에 밀접한 위생용품 품목 및 검사 항목 확대를 통해 도민이 믿고 위생용품을 사용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 합동

내달 말까지 화물차 사고예방 특별단속

광주시는 28일 "화물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자치구·광주경찰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9일부터 4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특별단속반 2개 팀(74명)을 구성, 산업단지 등 사고 다발 지점과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 총 3차례 집중 단속한다.

특별단속반은 ▲과적 ▲화물 이탈방지(덮개·포장·고정장치) 위반 ▲불법 구조변경 ▲판스프링 불법 장착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 ▲정비 불량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단속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화물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화물차 특별단속도 필요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이 교통 안전을 지키는 의식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운수종사자 안전 수칙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전남도, 국내 최초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 시동

7개 기업 1천340억 투자…무안 MRO산단 250여명 일자리 창출

전남도가 미래 성장이 유망한 화합물반도체 기업을 유치, 국내 최초로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2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웨이브피아, 제엠제코㈜, ㈜인프리즘, ㈜선코리아, 그릿씨아이씨㈜, ㈜올인텍, ㈜코스텍시스(서면) 등 7개 기업과 1천34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식에선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군수, 이상훈 ㈜웨이브피아 대표, 최윤화 제엠제코㈜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 항공정비(MRO) 산단을 중심으로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남도는 반도체 블루오션이자 차세대 반도체로 각광받는 화합물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목포대학교에 화합물반도체센터를 설립, 설계·제조·패키징 등 전주기적 토털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

또 화합물반도체 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반도체 전문기업을 유치하는 결실을 봤다. 특히 투자 대상 지역인 무안 항공정비 산단을 반도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협약에 따라 ㈜웨이브피아는 400억원을 투자해 화합물반도체 설계와 후공정(패키징)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소와 우주항공 부품신뢰성 센터를 설립한다.

제엠제코㈜는 500억원을 투자해 전력 모듈 후공정(패키징)연구소와 후공정(패키징) 부품 양산 공장 등을 건립한다.

㈜인프리즘은 100억원을 투자해 화합물반도체 설계 연구소와 무선통신 시스템 제조 센터를 설립하고, ㈜선코리아는 20억원을 투자해 모듈 상자(케이스) 등 반도체 부품 공장을 신설한다.

그릿씨아이씨㈜는 10억원을 투자해 화합물반도체 디자인하우스 센터를 설립, 초광대역 무선통신 센서 등을 생산하고, 반도체 측정 장비 판매·유지 보수 업체인 ㈜올인텍은 1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측정 장비 유지·보수(솔루션) 센터를 건립한다.

또 서면협약을 한 ㈜코스텍시스는 300억원을 투자해 전력반도체 열관리 연구센터 등을 건립, 반도체 방열 신소재를 생산한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기업 유치가 마무리되면 무안에 250여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김재정기자

전남 관광 홍보책자 '봄:남도여행' 배포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봄을 테마로 한 전남 관광 홍보 책자를 제작했다.

책자는 전남 22개 시·군의 ▲봄 대표 관광지 ▲지역별 별미 ▲추천 여행 코스 ▲3-5월 남도축제 등을 담았다.

22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서남부권 목포(입암산), 완도(남파랑길 87코스), 해남(설아다원), 무안(물맞이 치유의 숲), 신안(백억원), 진도(운림산방) ▲중남부권 나주(한수제 물레길), 보성(제암산 자연휴양림), 화순(세량지), 강진(백운동 정원), 영암(도갑사), 장흥(선학동 유채마을) ▲동부권 여수(영취산), 고흥(나로도 봉래산), 구례(지리산 치즈랜드), 순천(조계산 선암사), 광양(망덕포구) ▲북부권 담양(대나무생태공원 대숲 산책로), 영광(물무산 행복숲), 곡성(섬진강 자전거 도로), 함평(자연생태공원), 장성(장성댐 수변길)의 봄 대표 관광지를 소개했다.

특히 봄을 테마로 활용, 아름다운 남도의 꽃 풍경 사진을 볼 수 있으며 최신 관광지를 담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여름 편은 오는 5월17일 발간된다.

책자는 전국 주요 관광안내소 등 여행 관련 기관 225개소에 비치하고 남도여행길잡이(www.namdokorea.com) 관광웹진보기에서 열람·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김재정 기자